

제24호

주간농사정보

2025. 6. 23. ~ 6. 29.



**농촌진흥청에서는 금주에 꼭 실천해야 할 주요 농업기술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매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목 차 ||

제1장	농업정보		1
제2장	벼		4
제3장	밭 작 물		6
제4장	채 소		8
제5장	과 수		11
제6장	화 훼		15
제7장	특용작물		18
제8장	축 산		20
제9장	양 봉		24

요 약

분야	핵심기술 및 정보
농업 정보	• (기상) 기온은 평년(21.8~22.8℃)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29.5~79.1mm)보다 많겠음 *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덥고 습하겠음 • (저수율) 64.6%(평년 56.9%의 113.5%) * 6. 16. 기준
벼	• (본답관리) 이삭 패기 전 40일부터 30일 사이에 중간 물떼기 실시 • (병해충방제) 먹노린재, 도열병 등 병해충 수시 예찰 및 약제 준비
밭작물	• (기상재해) 폭염대비 관수 등으로 수분손실 방지, 집중호우 대비 배수로 정비 등 • (콩) 제초와 겸하여 파종 후 30~40일경, 개화 10일 전에 북주기 작업 실시 • (감자) 봄감자 수확 및 여름재배 시 역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방제 실시 • (참깨) 잘록병, 역병, 시들음병, 잎마름병 등 예방 위주로 약제 살포
채소	• (고추) 역병, 탄저병 등 병해충 방제, 장마 대비 배수로 정비 및 지주대 보강 • (여름배추) 육묘 시 방충망 피복 및 순화, 뿌리혹병·칼슘결핍증 예방 • (시설채소) 고온 대비 환기팬 가동 및 차광망 활용, 시설내 온·습도 관리
과수	• (6월낙과) 일조부족, 수세과다, 토양수분 과잉·부족, 고온·저온으로 발생 - 대책: 마무리 적과 늦추어 실시, 배수관리 철저, 영양제 살포 자제 • (열과) 과실비대기와 수확 전, 가뭄 이후 급격한 수분 흡수에 의해 발생 - 예방대책: 암거배수 설치 등 배수로 점검, 인공수분 통한 안정착과 등 적과 철저 • (햇볕데임) 일 최고기온 31℃ 이상 맑은 날 발생, 양광면 음광면에 비해 10℃ 높음 - 예방대책: 적절한 가지 배치를 통한 일소피해 예방, 미세살수장치 가동 필요
화훼	• (국화 고온장해) 고온피해로 발생하는 관생화 증상을 막기 위해서 시설 내 주간온도는 30℃ 이하, 야간온도는 10℃ 이상으로 관리
특작	• (인삼) 해가림 피복물, 배수로 등 시설을 잘 관리하여 갑작스러운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병 발생이 많은 시기이므로 방제에 유의함 • (약용작물) 흰가루병, 점무늬병, 탄저병 등은 발생 초기에 방제약제를 살포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응애류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 관리함
축산	• (가축관리) 축사환경 적정 온습도 관리 및 청결 유지, 무더위 대비 시설점검 • (집중호우) 장마 대비 축대 보수 및 배수로 정비, 전기 안전점검 실시
양봉	• (사육관리) 무밀기 먹이 공급, 급수기 설치, 적당량의 설탕물과 화분공급, 로열젤리 생산 시 먹이 공급 • (구왕 교체 및 인공분봉) 교미상 조성과 인공분봉 증식과 꿀벌응애류 및 부저병 집중 방제



제1장 농업정보

1 기상 상황 및 전망

○ 최근 1개월(2025.5.15.~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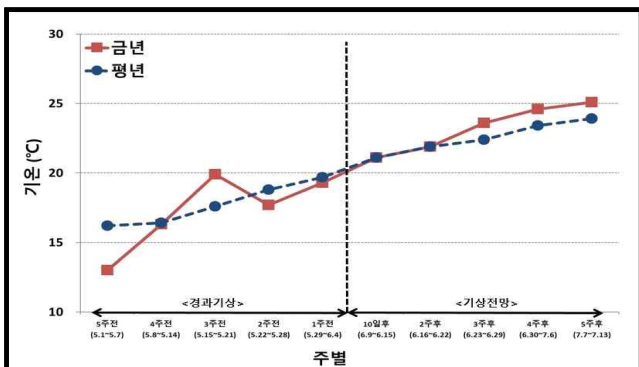
- 기온은 19.8℃로 평년(19.2)보다 0.6℃ 높았음
- 강수량은 59.5mm로 평년(81.9)보다 22.4mm 적었음(72.6%)
- 일조시간은 205.7시간으로 평년(207.5)보다 1.8시간 적었음(99.1%)

○ 1개월 전망(2025.6.23.~7.20.) * 기상청: 2025. 6. 12. 11: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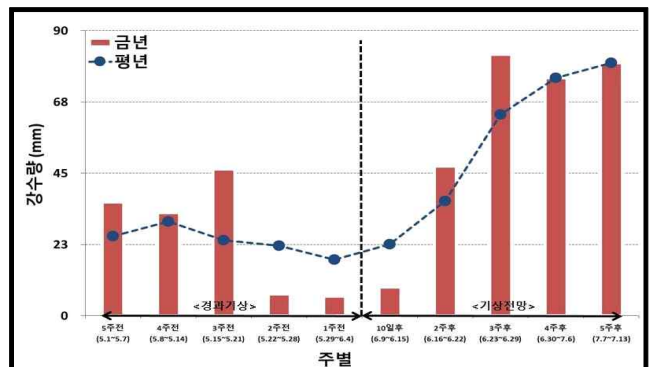
-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
- *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덥고 습하겠음
-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 남서쪽에서 다가오는(6월 5주), 북쪽을 지나는(7월 1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후반에는 대기불안정으로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구 분	평 균 기 온	강 수 량
6월 5주 (6.23.~6.29.)	평년(21.8~22.8℃)보다 높음	평년(29.5~79.1mm)보다 많음
7월 1주 (6.30.~7.6.)	평년(22.7~23.9℃)보다 높음	평년(37.5~100.4mm)과 비슷
7월 2주 (7.7.~7.13.)	평년(23.0~24.4℃)보다 높음	평년(44.5~95.3mm)과 비슷
7월 3주 (7.14.~7.20.)	평년(23.8~25.2℃)보다 높음	평년(42.1~74.4mm)과 비슷

○ 최근 기상 경과와 전망



<기 온>



<강수량>

* 자료제공 : 국립농업과학원 심교문 연구관(063-238-2518)

2

저수율 및 강수량 현황

□ 전국 저수율 : 64.6%(평년 56.9%의 113.5%) * 6. 16. 기준

(단 위 : %)

년도 \ 시도	전국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금년(A)	64.6	60.7	53.3	54.4	60.0	57.7	70.0	66.1	62.7	71.0	56.2
전주대비	(↑0.7)	(↓4.8)	(↓6.6)	(↓5.8)	(↓3.1)	(↓1.4)	(↑4.5)	(↑0.7)	(↑1.5)	(↑1.7)	(↑1.3)
평년(B)	56.9	50.8	51.7	60.1	54.9	53.2	55.7	56.0	60.7	61.3	57.3
평년대비(A/B)	113.5	119.5	103.1	90.5	109.3	108.5	125.7	118.0	103.3	115.8	98.1

□ '25년 누적 강수량 : 350.3mm(평년 352.8mm의 99.3%)

(단 위 : mm)

년도 \ 월	1	2	3	4	5	6/16 까지	6/17 이후	7	8	9	10	11	12	합계
금년(A)	16.9	15.7	48.3	67.3	117.3	84.8								350.3
평년(B)	26.3	35.7	56.5	89.7	102.1	42.5	105.7	296.5	282.6	155.1	63.0	48.0	28.0	1,331.7
A/B(%)	64.3	44.0	85.5	75.0	114.9	199.5								26.3

○ 시도별 누적 강수량 ('25.1.1.~6.16.)

(단 위 : mm)

년도 \ 시도	평균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금년(A)	350.3	332.3	282.1	265.3	329.5	311.2	422.7	464.7	303.1	416.0	640.4
평년(B)	352.8	278.5	289.6	319.4	304.7	314.2	339.6	432.5	303.2	465.0	587.9
A/B(%)	99.3	119.3	97.4	83.1	108.1	99.0	124.5	107.4	100.0	89.5	108.9

○ 최근 2개월 누적강수량 ('25.4.17.~6.16.)

(단 위 : mm)

년도 \ 시도	평균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금년(A)	231.1	207.7	163.7	147.1	219.3	192.3	273.3	327.6	213.1	292.6	397.4
평년(B)	194.2	180.6	178.7	177.5	168.0	174.4	178.7	231.0	164.6	255.0	290.8
A/B(%)	119.0	115.0	91.6	82.9	130.5	110.3	152.9	141.8	129.5	114.7	136.7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제공 : 농촌진흥청 정은수 지도사(063-238-1052)

참 고

이상기후 감시 · 전망정보

□ 주간 이상저온 및 이상고온 전망(2025. 6. 23. ~ 6. 29.)



○ 주요 지점별 이상저온 및 이상고온 기준

지 점	이상저온 기준	이상고온 기준	지점	이상저온 기준	이상고온 기준
	최저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최고기온
춘천	16.8℃ 미만	30.2℃ 초과	강릉	15.7℃ 미만	30.0℃ 초과
서울	18.2℃ 미만	30.2℃ 초과	인천	17.6℃ 미만	27.8℃ 초과
청주	18.2℃ 미만	30.3℃ 초과	대구	17.9℃ 미만	31.3℃ 초과
전주	18.3℃ 미만	30.2℃ 초과	광주	18.5℃ 미만	29.9℃ 초과
부산	17.7℃ 미만	26.9℃ 초과	제주	18.6℃ 미만	28.1℃ 초과

※ 해당 주의 이상저온 및 이상고온 전망은 주 평균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의 이상저온·이상고온에 대한 발생 가능성(확률) 전망을 나타내고, 발생 가능성 백분율이 30% 이상일 경우 이상저온·이상고온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 평년(1991~2020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이상저온은 최저·최고기온이 10퍼센타일 미만, 이상고온은 최저·최고기온이 90퍼센타일 초과 범위로 정의하였습니다.



※ 퍼센타일: 평년 동일 기간에 발생한 기온을 비교하여 작은 순서대로 몇 번째인지 나타내는 백분위수 [출처: 기상청]



제2장 벼

1 본답 관리

- 여름철 비가 오는 기간이 많을 경우 일조시간 부족으로 벼가 웃자라 연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잎도열병 등 병해충 방제 및 시비 관리 철저
 - 잎도열병이 심하게 발생한 논은 이삭거름 줄 시기에 낮은 온도가 계속되거나 장마가 계속될 때는 칼륨(가리) 비료만 사용함
 - 이삭거름은 이삭이 패기 전 전용 복합비료로 사용함
 - * 일반재배: 이삭 패기 25일 전 10~11kg/10a(N-K복합비료/18-0-18)
 - * 최고품질 쌀: 이삭 패기 15일 전 7~8kg/10a(N-K복합비료/18-0-18)
- 참 새끼치기가 끝난 논은 중간 물떼기 실시
- 중간물떼기 시기는 이삭 패기 전 40일부터 30일 사이에 실시하며 배수가 좋은 사양토는 5~7일간 논바닥에 가벼운 실금이 갈 정도로 하고, 배수가 잘 안되는 점질토양에서는 7~10일 정도 비교적 강하게 하여 금이 크게 가게 함

<벼 생육단계별 물 관리 요령>

생육기간	물 대는 요령	물깊이(cm)	효 과
분얼성기	얇게 댈 것	2~3	새끼치기 촉진
무효분얼기	중간 물떼기(이삭패기 전 40~30일 전, 5~10일간)	0	헛새끼치기 억제, 유해물질 제거, 쓰러짐 방지
수잉기 (이삭이 생기는 시기)	물 걸러대기(이삭패기 30일 전~이삭팔 때, 3일 관수/2일 배수)	2~4	뿌리활력 증대, 유해물질 제거 촉진
출수기 (이삭이 나오는 시기)	보통으로 댈 것	3~4	꽃가루받이 촉진
등숙기 (이삭이 익는 시기)	물 걸러대기 (3일 관수/2일 배수)	2~3	여름 촉진, 뿌리기능 유지, 유해물질 제거
낙수기 (물 떴는 시기)	완전 물떼기(이삭패기 후 30~35일 전후)	0	품질 양호, 농작업 편리

※ 품종, 지대별 이앙적기 차이, 가뭄에 의한 이앙지연 등에 따라 생육단계에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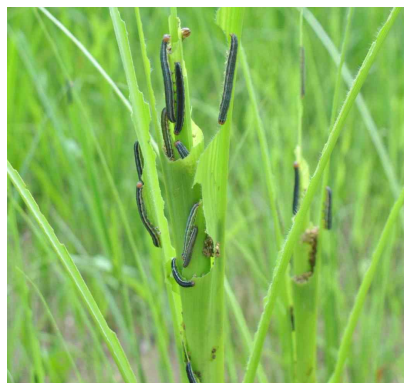
2

병해충 방제

- 먹노린재는 논 근처 산기슭에서 어른벌레로 겨울을 난 뒤 6월 상·중순부터 모내기한 논으로 이동해 10월까지 피해를 주며, 논에 침입한 암컷이 알을 낳기 전인 7월 상순까지 예찰과 방제 철저
- 멸강나방은 어른벌레가 중국에서 날아와서 피해를 주는 비래해충으로 목초, 옥수수 등에 발생하며, 올해는 3월 하순 처음 비래가 확인되었음. 주로 6월 중하순에 애벌레에 의한 피해가 많으며 중부 지역에서는 7월 중순까지도 피해가 발생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 발견과 신속한 방제가 중요하므로 영농현장에서는 수시 예찰과 방제에 필요한 약제 준비가 필요함
 - 목초지나 옥수수 포장 등 기주식물 재배 지역을 예찰하여 애벌레가 발견되면 등록 약제로 발생 초기에 방제함
- 잎도열병은 거름기가 많은 논에서 비가 자주 내리거나 장마가 지속되면 발생하며, 도열병에 약한 품종에서는 국지적인 강우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 있으며 발생 초기에 전용 약제로 방제함
 - * 도열병에 약한 품종: 화성벼 · 청아벼 등(중생종), 추청벼 · 일품벼 · 일미벼 · 새일미벼 · 신동진벼 · 호평벼 · 청담벼 · 진백벼 등(중만생종)



<먹노린재 피해>



<멸강나방 유충과 피해>



<잎도열병 증상>

* 자료제공 : 국립식량과학원 이승규 지도사(063-238-5212)

( 맨 앞으로)



제3장 발 작 물

1 여름철 기상재해 관리요령

□ 폭염기 발작물 관리

- 스프링클러 가동(발생 시) 및 짚·풀 등으로 작물 뿌리 주위를 덮어 토양 수분 증발과 지온 상승 억제
- 물빠짐이 좋은 경사지 토양은 비닐 피복 처리로 수분 증발 방지
- 고온성 해충(담배거세미나방 등)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노숙유충을 지속적으로 예찰하여 이른 아침이나 해진 후에 작용기작이 다른 적용약제를 교호 살포

□ 집중호우 시기 발작물 관리

- 침수 후에는 병충해 방제에 노력함
- 침수 시 조기 물 빼기 실시 및 흙 양금을 씻어주어 동화작용을 촉진함
- 참깨 돌립병, 시들음병, 땅콩 갈색무늬병 등 병해충을 방제함
- 퇴수 후 뿌리가 노출된 곳은 복주기 작업 실시함

2 콩

- 복주기 작업을 김매기와 겸하여 파종 후 30~40일경에 실시하되 늦어도 꽃이 피기 10일전까지는 마치도록 함
 - 복주기는 가운데 줄기의 제1본엽 마디까지 해주는 것이 좋음
 - 복주기를 하면 토양통기를 좋게 하고 뿌리 발생을 많게 하여 쓰러짐 방지와 13% 수량증대 효과가 있음

- 밀식하였거나, 거름기가 많은 포장, 생육이 왕성해 웃자라 쓰러짐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본엽 5~7매(개화기 전) 때 순지르기를 하며 키가 작거나 늦게 심었을 경우는 순지르기를 생략함

3 감자

- 봄감자 수확시기는 장마기 이전으로 토양이 건조한 맑은 날에 하며, 봄감자 수확 후 노지에 오랫동안 햇빛을 받으면 감자 체온이 높아져 저장 중 썩을 수 있으므로 잎줄기로 덮어 온도상승을 방지함
- 여름재배 감자는 고랭지대에서 이루어지는데 고랭지 기상 특성상 밤과 낮의 온도차가 크고 7월 장마기에는 강우량이 많아 감자 역병이 발병하기 쉬운 서늘한 온도(10~24℃)와 다습한(상대습도 80%) 환경조건이 되면 역병이 발생하므로 철저히 방제함

4 참깨

- 수박, 참외, 딸기, 옥수수 등 시설하우스 후작물로 참깨를 재배 하며 경지 이용률 향상 및 염류장해 예방에 효과적임
 - 파종시기는 7월 상순까지이며 재식 거리는 30~40cm×15cm 간격으로 심음
- 발아 초기에 발생하는 잘록병(입고병)과 수량에 치명적인 역병, 시들음병, 잎마름병 발생을 막기 위해 예방 위주로 적용약제를 뿌려줌

* 자료제공: 국립식량과학원 김정현 지도사(063-238-5223)

( 맨 앞으로)



제4장 채 소

1 고추

□ 주요 병해충 예방과 방제

- (역병) 6월 초순부터 발생하며 강우량과 강수일수가 결정적인 발생 요인이므로 배수로를 정비하고 이랑을 높여 물이 잘 빠지게 함
- (탄저병) 6월 중하순부터 발생하며, 8~9월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급속히 증가, 병든 과실을 발견 즉시 제거하는 것이 농약을 살포하는 것보다 효과적임
- (담배나방) 애벌레 피해를 입은 과실은 연부병에 걸리거나 부패해 낙과, 적용약제를 살포
- (총채벌레) 약충, 성충이 모두 기주식물의 순, 꽃 또는 잎을 흡즙하며 황색점착트랩을 설치해 발생량을 예찰하여 발생초기에 방제함

□ 주요관리

- (2차 웃거름) 1차 웃거름을 주고 한 달 후에 주며 웃거름 주는 양은 생육 상태에 따라 적정량을 시용함
- (장마대비) 배수로를 미리 정비해 주고 지주대를 보강함
- (가뭄대비)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고랑 부직포 피복 등을 활용

* 고온 및 가뭄 지속 시 석회결핍 예방을 위한 칼슘제 엽면시비

2

고랭지배추

- 육묘중인 배추는 진딧물에 의한 바이러스 전염 및 각종 해충의 피해 경감을 위해 방충망으로 피복함
- 아주심기 1주일 전에는 포장 환경에 견딜 수 있게 관수량을 줄이고 온도를 낮추어 모종을 순화시킴
- 뿌리혹병 예방을 위해 적용약제를 정식 직전 토양 전면 혼화처리하거나 아주심기 전 해당약제에 어린 모를 침지하여 사전 예방을 하도록 함
- 칼슘결핍증 예방을 위해 균형 있는 비료주기를 하고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며 결핍증상 우려 시 염화칼슘 0.3% 액을 엽면시비



〈뿌리혹병〉



〈칼슘결핍 증상〉

3

시설채소

□ 고온 피해증상

- (광합성 저하) 생육장애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호흡량이 많아져서 광합성률이 낮아지게 됨
- (생리장해) 토양수분 급변에 따른 열과 등 생리장해과 발생우려
- (시들음) 강한 햇볕으로 뿌리의 기능이 약화된 식물체의 시들음 현상
- (당도저하) 환기 불량 시 고온 장애 발생 및 당도 저하 우려

- (착과불량) 폭염 시 암꽃의 임성 불량과 벌의 활동약화로 착과불량



〈수박 일소과〉



〈멜론 시들음증〉

□ 고온 기술적 대책

- (온도관리) 고온 장해를 받지 않도록 환기를 잘하여 하우스 안의 온도가 30℃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
- (엽면시비) 요소 0.2%액 또는 4종 복합비료를 서늘할 때 엽면시비
- (병해충 방제) 흰가루병, 진딧물 등 병해충의 예찰 및 적기 방제
- (수분관리) 열과 예방을 위한 적정 토양수분 유지 및 배수 철저
- (차광 및 환기) 시설하우스 내외부 차광망 설치, 환기팬 가동이나 피복재를 천창까지 열어 고온장해 예방
- (적기수확) 수확은 오전 또는 오후 늦게 선선했을 때 수확

* 자료제공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나예림 지도사(063-238-6421)

( 맨 앞으로)



제5장 과 수

1

6월 낙과 발생원인 및 대책

□ 6월 낙과란?

- 생리적 낙과란 개화 직후로부터 성숙기까지의 과실 발육기간 중에 일어나는 기계적 낙과나 병충해에 의한 낙과를 제외한 그 밖의 원인에 의한 낙과를 말함
-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감나무 등 여러 과수에서 일어나며 특히 6월경에 발생하는 유월낙과(june drop)의 정도는 과실의 수량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중요시되고 있음

□ 발생원인

- 만개 후 5~20일 사이에 일어나는 초기낙과는 암술의 불완전이나 불수정에 의한 낙과가 대부분이나 그 후의 낙과는 주로 수정이 되었더라도 어떤 원인에 의하여 배의 발육이 정지되어 일어나는 낙과임
- 6월 낙과와 같이 조기낙과의 후반기에 일어나는 낙과는 일조부족, 수세과다, 토양수분의 과잉 또는 부족, 고온 또는 저온 등으로 인하여 배의 발육이 정지되어 낙과하는 것으로 알려짐
- 조기낙과는 과실이 일시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이 떨어지는 시기와 적게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 어떠한 과상을 이루고 있음
 - 첫 번째에서는 비정상적인 꽃, 수분이 되지 않은 꽃, 수분은 되었지만 수정이 되지 않은 꽃이, 두 번째에서는 수정은 되었지만 배가 퇴화된 것, 세 번째에서는 개화 7~9주 후에 일어나는 유월낙과임

□ 사전대책

- 수정을 확실하게 하여 과실 내 종자수가 많아지도록 유도
 - 적절한 수분수 재식, 화분매개곤충 방사, 인공수분 실시 등
- 영양상태의 조화
 - 유월낙과는 새가지와 과실 간의 양분과 수분 경쟁에 따른 공급 불균형으로 종자 배(胚)의 발육이 억제되거나 퇴화되어 일어나므로 뿌리로부터 흡수되는 질소와 잎에서 만들어지는 동화양분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개화 후에는 꽃 또는 열매숙기를 철저히 하여 새가지와 과실 간, 과실과 과실 간의 양분 경쟁을 줄임

□ 사후대책

- 낙과현상 발생이 심한 과원은 마무리 적과를 늦추어 실시
- 과원 토양이 과습하지 않도록 배수관리 철저
- 수세 강한 과원은 영양제 살포 자제

2 열과 피해 원인과 경감 대책

□ 열과 발생 원인

- 과실비대기와 수확 전, 가뭄 이후 급격한 수분 흡수(강우)에 의해 주로 발생
 - 과실에 수분이 흡수된 상태에서 과피가 견디지 못해 갈라짐
- 사질토양과 뿌리가 깊이 뻗지 못한 나무에서 발생 심함
 - ※ 배의 경우 과피가 얇고 유연한 ‘화산’, ‘신화’, ‘신고’ 등에서 발생 많음
 - ‘신화’, ‘화산’ : 과실비대 초기(6월)에 다발생
 - ‘신고’ : 과실비대 후기(9~10월)에 다발생



<배 품종별 열과의 여러 형태 신화(좌), 신고(중), 화산(우)>

□ 열과 발생 예방 대책

- (지하부 관리) 토양물리성 개선으로 수채 생육을 좋게 하고 수세를 안정시킴
 - 개원 전 암거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과원 내 배수로(명거배수)는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장마철 과원의 물빠짐 상태를 좋게 함
 - 꾸준한 적정관수로 토양 수분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사질토양은 관수와 토양피복으로 한발 피해를 방지함
- (지상부 관리) 합리적 결실관리를 위한 열과 예방
 - 꽃가루가 충분한 수분수를 재식, 인공수분 등으로 안정 착과유지
 - 조기 적과하되, 주기적으로 병든 과실 등 상품성을 잃은 과일은 적과함

3 햇볕 데임(일소) 피해 예방

□ 햇볕 데임(일소) 발생 원인

- 일소피해는 높은 과실온도와 강한 광선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
 - 해에 따라 발생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햇빛에 직접 노출되는 과실에 발생
 - 피해가 심한 경우는 피해부에 탄저병 등이 2차 전염하여 피해 발생

- ☞ 일 최고기온이 31℃를 넘는 맑은 날에 발생이 시작
- ☞ 이때 과실 표면의 온도차는 13시 이후에는 양광면이 음광면보다 약 10℃ 이상 높게 나타남

□ 햇볕 데임(일소) 예방 대책

- 과실이 강한 직사광에 적게 노출될 수 있도록 정지 전정에 주의하고 이후 유인으로 가지를 알맞게 배치함
- 상향과, 주변 잎이 적은 과일 위주로 적과하고, 과다 착과가 되지 않도록 함
- 햇빛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생육기 동안 불필요한 도장지를 제거하되 지나치지 않도록 함
 - * 웃자람 가지 방치 시 수관 내부 햇빛 투과 방해로 꽃눈형성 불량, 과실 비대 불량, 착색 불량 등으로 상품성이 하락함
- 관수를 적절히 하여 토양이 과습, 과건조 되지 않도록 함
- 외부온도가 $31\pm 1^{\circ}\text{C}$ 일 때 물을 뿌려주어 잎과 과실의 온도상승 억제
 - * 미세 살수장치 이용 시 5분간 뿌리고, 1분간 멈추도록 설정



〈배 엽소증상〉



〈사과 일소증상〉



〈단감 일소증상〉

* 자료제공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환규 지도사(063-238-6432)

( 맨 앞으로)



제6장 화 화

1

국화 여름철 관리

- 국화의 생육 적온은 15~20℃로, 국화 꽃이 25℃ 이상에서는 붉은 색이나 분홍색에 잘 발현되지 않음
- (차광재배) 시설 내 온도가 30℃ 이상이 되지 않도록 차광과 환기하여 주고 야간에도 25℃ 이상 온도 상승하지 않도록 주의
 - 꽃눈 유도 중 고온을 받으면 꽃 속에 다시 꽃이 형성되는 관생화가 발생하므로 차광 개시 후 온도를 30℃ 이하로 관리
 - 고온기에는 화아분화 속도가 빠르므로 초장을 40~50cm까지 확보한 후 차광을 하고 차광막 내의 광도는 10Lux(룩스) 이하로 하여 꽃잎이 착색될 때까지 지속함
 - 7월 중순 이후부터 수확할 국화는 6시~19시까지 해가림을 하여 고온에 의한 기형화와 버들눈(중심화가 미숙한 꽃눈으로 발달) 발생을 방지함

2

국화의 고온장해

- 한여름 시설 내에서 높은 고온을 받게 되면 통상화 및 관생화가 발생하고, 생육이 왕성하면 일찍 화아분화하는 경우가 있음
 - * 관생화: 꽃 속에 작은 꽃을 포함하는 기형화
 - * 통상화: 꽃잎이 서로 붙어 대롱같이 생기고 끝만 조금 갈라진 꽃
- 차광재배 시 야간에는 암막을 제거하여 시원하게 해줄 필요 있음

- 고온이 되면 화색의 발현이 나빠져 품종고유의 색깔을 낼 수 없음
 - 특히 적색이나 분홍색 계통의 색상발현에 관여하는 안토시아닌은 25℃ 이상의 온도 조건에서는 거의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화아발달기의 온도관리가 매우 중요함
- 관생화 발생의 요인은 계통 간에 차이가 있지만 화아분화기 주간 고온(30℃ 이상) 환경, 차광재배 시의 환기 불량 등이 주요 원인이 됨
- 천수 품종의 6월 차광재배에서 관생화 발생은 차광 개시 후 4주째에 주간온도 30℃ 이상을 56시간(1일 평균 8시간×7일) 정도 받으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짐
- 관생화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발생이 적은 품종을 선택하고 차광 개시 이후에는 시설 내의 주간온도를 30℃ 이하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야간온도를 10℃ 정도로 많이 낮춰도 관생화가 발생함

<주온 및 야온 제어가 '천수' 품종의 개화추이와 관생화 발생정도에 미치는 영향>

온도(℃)	단일처리 후 30℃이상 적산기간(시간)				개화 소요 일수	관생화 발생(%)		
낮/밤	20일 이전	20~30일	30~40일	계		정상	경미	심함
25/15	3.6	0	2.6	6.2	74	94	6	0
30/15	35.0	6.2	28.9	70.1	77	52	33	15
25/13	5.9	0	0.6	6.5	86	100	0	0
30/13	28.5	4.5	27.9	60.9	89	73	20	7

3 국화의 장마철 병해

- 장마 시기에는 일조량 부족과 다습은 국화에서 흰녹병 발생 우려로 지속적 관찰을 통한 예방과 발생 후 철저한 방제 필요

- 국화가 시설 내 비닐하우스와 같은 다습하고 서늘한 환경에서 많이 번식하며, 비가 많이 내려 다습한 조건에서 흰녹병의 곰팡이 포자가 퍼져 병 발생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여름철 장마기에는 지속적인 관리와 주의 깊은 관찰로 조기에 약제를 살포해 전염 확대를 막고 물주기의 시기를 잘 조절해 과습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유의
- 흰녹병(*Puccinia horiana*)은 곰팡이 종류의 하나로 흰녹병에 걸리면 잎 앞면에는 황백색의 동그란 병반이 생기고 잎 뒷면에서는 흰색 돌기가 생김
- 육안상으로 흰녹병이 발생한 이병주는 신속히 제거해야 하며, 시설을 전체적으로 소독해 주는 것이 좋으며, 공기 순환을 하고 습기를 제거하고, 적용 약제를 빠르게 살포하고 한 종류의 약제를 연용하지 말 것

*** 자료제공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소희 연구사(063-238-6422)**

( 맨 앞으로)



제7장 특용작물

1

인삼

□ 인삼포 관리

- 고온기 흑색 2중직 차광막을 추가로 설치하여 해가림 내부 온도를 낮추어 주고, 지나친 광 투과를 막아줌
- 건조한 토양에서는 고온건조기에 2~3일 간격으로 흙이 축축할 정도로 충분히 관수함
- 인삼포 내로 비가 누수 되지 않도록 해가림 피복물을 보수하여 누수로 인한 점무늬병 및 탄저병 발생을 예방함
- 갑자기 비가 오는 경우 두둑이나 고랑 바닥이 파여 배수가 불량해지면 과습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배수로를 미리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함

□ 병해충 방제

- (잿빛곰팡이병) 기온이 높고 다습한 조건에서 발생이 증가하여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해마다 예찰을 통해 방제시기를 잘 파악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고온장해로 잎이 괴사하지 않도록 포장과 차광망을 관리함
 - 회색의 곰팡이가 생겨난 감염조직은 소각하거나 재배포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 처리함
 - 병이 발생한 포장은 카벤다짐 · 디에토펜카브(수), 펜헥사미드(수) 등 적용약제로 방제해 줌

- (점무늬병·탄저병) 병 예방을 위해 해가림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누수를 방지하고 외부로부터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배수로를 설치하여 줄
- 약제에 의한 방제는 점무늬병과 탄저병은 동시방제가 가능하며, 방제용 약제에 전착제를 첨가하여 엽면살포 해줌



<썩은잎병 피해>



<점무늬병 피해>

2

약용작물 병해충 관리

- (흰가루병) 황기, 오미자, 작약 등의 잎, 잎자루, 줄기에 발생하여 표면에 흰가루 형태의 병징을 형성하며, 방제는 발병 초 적용약제를 살포하고 병든 잎은 일찍 제거하여 전염원을 없애줌
- (점무늬병, 탄저병) 연약하게 자라지 않도록 질소질 비료의 과용을 삼가고, 발생 초기에 전용약제를 살포하여 방제하며 배수시설을 철저히 하여 전염원의 이동을 막도록 함
- (응애류) 예방과 초기 방제가 중요하므로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 재배포장을 면밀히 관찰하여 피해주를 발견하였을 때 해충을 포살하거나 등록된 적용약제 살포



<‘황기’ 흰가루병>



<‘지황’ 점무늬병>



<‘당귀’ 차응애>

* 자료제공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다인 지도사(063-238-6452)

( 맨 앞으로)



제8장 축 산

- (가축관리) 축사환경 적정 온습도 관리 및 청결 유지, 무더위 대비 시설점검
- (집중호우) 장마 대비 축대 보수 및 배수로 정비, 전기 안전점검 실시

1 초여름 가축 및 축사환경 관리

- 초여름 온도가 높아지면 체내 대사 불균형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폐사로 이어짐
 - 축사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송풍팬을 가동해 체감온도를 낮춤
 - 지붕에 단열재를 보강하고 차광막을 설치하여 온도상승을 줄임
 - 지붕에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고 축사 내에 안개분무장치 활용
 - 단위면적 당 사육두수를 평시보다 10~20% 줄여 온도상승을 줄임
 - 사료는 조금씩 자주 급여하고, 사료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농장 안팎 정기적으로 소독 실시, 축사 주변 잡초와 물웅덩이를 제거하여 해충 발생 방지
- 일반적으로 27~30℃ 이상의 고온이 계속되면, 가축 체온 상승, 음수량 증가, 사료섭취량 감소하여 가축의 증체량 감소 및 번식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심하면 가축이 폐사함

< 가축의 적정온도 및 고온한계온도 >

구 분	한육우	젖 소	돼 지	닭
적 온	10~20℃	5~20℃	15~25℃	16~24℃
고온한계온도	30℃	27℃	27℃	30℃

- 여름철에는 물 섭취량 증가가 두드러지므로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급수량은 충분한지 확인하고 급수조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
- 사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구입하고 건조하게 보관하며 사료조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사료빈의 내부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빈 외벽에 열차단 단열재를 설치하거나 흰색 도료를 칠하면 도움이 됨
- 환기팬에 먼지, 거미줄이 과도하게 조성되어 있을 경우 10% 이상의 성능 저하가 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청소와 벨트 점검
- 국립축산과학원 축사로 누리집에서는 1시간 단위의 축종별 가축 더위지수와 혹서기 사양관리 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활용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 컴퓨터 화면



축사로(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



여름철 사양관리정보 제공



미래 가축더위지수 전망

*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 : 국립축산과학원 축사로 누리집 (chuksaro.nias.go.kr)

2

집중호우 대비 축사 관리

□ 사전대비

- (농장정비)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축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수하고, 축사 주변, 운동장, 초지·사료포 등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 (안전점검) 바람이나 비로 인한 누전 등 전기사고 예방을 위하여 축사 내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료는 비를 맞지 않는 곳으로 옮겨 안전하게 보관

□ 사후관리

- 농후사료와 풀사료는 곰팡이로 인한 변질과 부패는 없는지 자주 살피고 기온이 낮은 새벽이나 저녁에 조금씩 자주 먹여 관리
 - 깨끗한 물과 함께 축종별 적절한 비타민과 광물질을 별도로 보충하여 가축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핍
 - 바람이 잘 통하도록 주변 장애물을 옮기고 송풍팬을 틀어 40~70% 범위 내 적정 습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 젖은 깔짚은 제거하고 충분한 양의 마른 깔짚을 깔아 축사 바닥이 젖어지지 않도록 관리
 - 사육밀도를 낮추어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독시설 가동 점검 및 시설 파손여부를 점검하여 질병 전파 차단
- * 기존 사육밀도 대비 평균 10~20% 낮춰 관리(돼지 90%, 닭 80% 수준)
- 침수된 장소의 물을 빼내고, 유기물 등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 환경에 맞는 적절한 소독제를 살포하여 축사 및 가축 위생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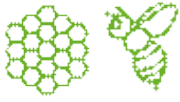
3

여름철 축사 전기화재 및 정전 예방

- 여름철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냉방기와 환기시설 가동으로 과도한 전력이 사용되어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한 화재 위험 증가
 - 플러그 및 콘센트 정기점검, 낡거나 손상된 전기기구 즉시 교체
 - 전기기구 접촉 상태 주기적 확인 및 주위의 먼지·거미줄 제거
 - 공인된 안전 인증을 받은 전기기구 사용
 - 콘센트나 소켓 하나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 연결하지 말아야 함
- 자동급이기 및 환기시스템 등 전기 자동화 시설이 설치된 축사는 정전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정전 발생을 알려주는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음
- 무창돈사 및 계사는 정전으로 환기팬 작동이 멈추면 질식사 위험이 커지므로, 정격전류 초과로 발생하는 전원공급 차단에 대비하여 주기적 점검이 필요
 - 비상시 대비 소요 전력량의 120% 용량의 자가발전기를 확보하고, 주 1회 이상 연료 점검과 발전기 상태를 확인
- 비가 잦은 시기에는 배전반과 전기 구동장치 주변에 물이 새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점검
 - 낙뢰 위험이 큰 고지대나, 산간에 위치한 축사는 반드시 피뢰침 설치

* 자료제공 : 국립축산과학원 백영목 지도관(063-238-7205)
국립축산과학원 이경은 지도사(063-238-7207)

( 맨 앞으로)



제9장 양 봉

1 여름철 벌무리 관리의 중요성

□ 사육관리

- 7월부터는 꽃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로 꿀벌은 벌통 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많은 물이 필요함.
벌통 입구에 급수기를 설치하면 효과적임
- 고온으로 인한 유충발육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봉사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벌통을 배치하는 것이 좋으나, 비가림 시설이 없을 경우 차광막, 스티로폼 등을 이용하여 직사광선이 벌통에 직접 쬌이지 않도록 조치함
- 밤꿀을 채밀한 직후로는 꽃이 부족한 무밀기가 시작되므로 인위적으로 설탕물을 조성(물:설탕 1:1)하여 공급함
- 벌통 내 화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용 화분을 공급하여 꿀벌 발육이 중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화분은 유충 사육에 필수 요소)
- 특히 설탕물을 공급할 때에는 해 질 무렵에 주어 밤사이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하여 다음 날 설탕물 냄새로 인한 도봉(도둑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벌무리의 일벌들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벌집을 빼내어 벌과 벌집의 비율을 60~70% (벌집면에 일벌들이 붙어 있는 비율) 정도로 조절해 줌



비가림시설



스티로폼 차광



급수기



대용 화분

□ 구왕교체 및 인공분봉

- 대부분 양봉 농가에서는 여왕벌의 높은 산란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1년 주기로 여왕을 교체함. 구왕을 교체하는 시기로 직접 구왕을 없애고 2일 후에 벌통 검사를 통해 왕대(여왕벌 번데기집)의 유무를 확인한 후에 신왕으로 교체하거나 출방 1일 전의 왕대를 유입함
- 신왕은 우화한 지 9일 이상된 여왕을 이용하며, 철망유입법(철망으로 여왕 보호)으로 유입하면 안전하게 교체할 수 있음
- 신왕의 교미를 위해 6월 초순부터 수벌을 양성하여 관리하고, 처녀왕 양성은 6월 25일 이후 순차적으로 이충한 왕대를 출방 1일전에 교미상(신여왕 교미를 위한 벌무리)에 유입함

<여왕벌과 수벌의 발육 기간과 교미적령일>

형태별	A. 발육 기간(일)	B. 교미적령일(일)	계(A+B)
수벌	24	12(10-20)	36
여왕벌	16	6(4-9)	22

- 교미상 조성은 전문 교미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의 벌통에서 어린 벌을 수집하여 교미상에 나누어 담은 후 출방 1일전의 왕대를 넣어줌. 먹이로 설탕물이 아닌 연당(가루설탕:꿀 9:1)을 공급함
- 일반 벌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번데기 벌집 1장과 먹이 벌집 1장을 넣고 출방 1일 전의 왕대를 벌집 사이에 넣어주거나 혹은 벌집면에 공간을 확보하고 붙여 줌. 이때 벌집에는 알이나 3일 이내의 어린 유충이 없도록 함



산란 신왕

왕대

전문교미상

철망유입법

□ 로열젤리 생산 지속

- 7월 1주는 밤꿀이 끝나면서 무밀기와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로열젤리 생산량이 줄어드는 시기로 필요할 때 설탕물을 공급하여 가상의 유밀기 상태를 유지함
- 이 시기는 어린 유충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설탕물과 대용 화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여왕벌이 왕성하게 산란하도록 유도함

□ 꿀벌응애류 및 부저병 관리

- 꿀벌응애류는 벌무리 관리에서 방제가 어려운 해충으로 6월부터 본격적인 증식기로 제때 방제를 하지 못하면 벌무리를 폐사시킬 수 있는 심각한 해충임
- 방제 방법으로는 응애가 수벌 번데기를 선호하여 수벌집을 이용하는 등의 물리적 방제법, 유기산이나 약제를 이용하는 화학적 방제법 등이 있음. 약제 처리 시에는 안전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이용하여 약해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
- 장마기에는 부저병(애벌레가 갈변하며 물러터짐) 발생이 높아지는 시기이며 초기 방제를 소홀히 하면 전체 양봉장으로 급속하게 확산됨. 병이 확산되면 전체 벌무리가 사라지게 되므로 초기에 감염된 벌집은 벌통에서 빼내어 소각하거나 땅에 파묻음



* 자료제공 : 국립농업과학원 박보선 연구사(063-238-2872)

( 맨 앞으로)

“농업은 스마트하게, 농촌은 매력있게”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대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안전관리요령

여름철에는 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농작물 침수, 쓰러짐, 낙과, 시설물 파손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비

배수로 잡초제거 및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여 물빠짐을 원활하게 한다.

- 침·관수된 논은 서둘러 앞 끝만이라도 물위로 나올 수 있도록 물빼기 작업을 실시하고, 비의 줄기나 앞에 묻은 흙 양금과 오물제거
- 물이 빠진 후에는 새물로 걸러대기하여 부리의 활력 촉진
- 침·관수된 논은 도열병, 흰잎마름병, 벼멸구 등 병해충 예방 약제 살포

침·관수 비 흙양금 및 오물제거 효과 (감수율)

생육시기	1~2일	3~4일
	방치 → 세척	방치 → 세척
유숙기 (아삭켄후 10일)	30 → 16 %	40 → 20 %
호숙기 (아삭켄후 20일)	20 → 11 %	30 → 16 %
황숙기 (아삭켄후 30일)	5 → 3 %	10 → 5 %

* 침수: 식물체의 일부가 물에 잠기는 상태 / 관수: 식물체의 전체가 물에 잠기는 상태



밭작물·원예작물

밭작물

-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습해 사전 예방
- 참깨는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하여 쓰러짐 방지
- 비오기 전·후 주요 병해충 예방 약제 살포
- 쓰러진 농작물 세우기, 겉흙이 씻겨 내려간 포기 흙을 보완 해주기
- 생육이 불량한 작물은 요소 0.2%액(비료 40g, 물 20L)앞에 부려 주기

원예작물

-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습해 사전 예방
- 지주를 점검하여 선의 당김 상태를 확인하고, 가지를 지주시설에 고정
-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는 깨끗하게 잘라낸 후 적용약제 발라주기
- 탄저병, 겹무늬썩음병 등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피해가 심할 경우 수세회복을 위하여 요소 0.2%액(비료 40g, 물 20L) 앞에 부려 주기



인삼

- 해가림 설치 시 각도(24°)를 준수하면서 피복물을 팽팽하게 유지하도록 설치
- 강풍에 대비하여 해가림 시설 구간구간 버팀목으로 지주목을 고정하고 방풍망 설치
- 침수 시 최대한 빠르게 물을 빼주고, 깨끗한 물로 양분을 씻어줌
- 잣빛곰팡이병, 탄저병 등 병해충 방제



버팀목 설치



방풍망 설치



정비 잘된 고랑



축산

축사·전기시설 점검 및 축사주변 배수로 정비

- 충분한 환기와 수시 분뇨제거로 유해가스 발생방지 및 적정 습도 유지
- 가축 및 축사소독·방제장비 확보 및 차단방역 철저
- 초지나 사료작물 포장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 방지
- 사료는 비에 젖지 않도록 보관하고, 변질된 사료는 주지 않도록 함



농업시설물 관리요령

위험지역 내 시설물 관리 및 보수

- 강풍이 불 때는 비닐하우스를 밀폐하고 끈으로 튼튼히 고정하여 골재와 비닐을 밀착시켜 피해예방
- 비닐 교체예정인 하우스는 비닐을 미리 제거하여 피해 예방



비닐 사전 제거 하우스



일반 피해 하우스



시설하우스 비닐 고정



피복비닐 보수, 환기창 등 개폐부위를 점검하여 하우스를 철저히 밀폐

- 환기팬이 설치된 경우 팬을 가동하여 비닐하우스가 들뜨는 것을 방지
- 고정끈 확인 및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 등 하우스 주변 정리
- 하우스 벽면 브레이싱(가새) 설치,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예방
- 깨끗한 물로 작물 및 기자재 등을 씻어주고 방제를 실시
- 피해 상황을 시·군 행정기관 등에 즉시 신고하고 복구 지원 요청



농기계

농기계에 묻은 흙이나 오물 등은 제거한 후 기름칠을 하여 통풍이 잘 되고 비가 맞지 않는 곳에 덮개를 씌워 보관 한다.

- 물에 잠긴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말고 물로 깨끗이 닦은 후 습기를 제거하고 기름칠을 한 후 점검을 받은 다음 사용
- 기화기, 공기청정기, 연료여과기, 연료통 등은 습기가 없도록 청소하거나 새 것으로 교환



안전사고 예방

집중호우 시 저지대·상습 침수지역은 대피 준비를 하고, 고압전선(가로동, 신호등) 등 위험시설 근처에 가지 않도록 한다.

- 천둥·번개 등 악천후로 인한 낙뢰 위험이 있을 경우 건물 안이나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한다.
- 집 주변의 축대 붕괴, 산사태 등 위험이 예상된 경우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거나 대피 준비를 한다.
- 하천도로, 지하차도, 다리 등은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이용한다.

**“자연재해 발생 시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8900)

농업기술상담 | 농촌진흥청(1544-8572),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정보 |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